

오려 붙인 시 1

그래 아직도 망하는 가까운 미래

심장, 눈물 없음

기계를 끄고 멈춰 마지막 답장 않도록

어딘가 이상없는 홀 몸

대체로 무능일까 환영한다

가족없이 꿈을 새롭게 써야 해

바깥

기록

이야기

더러운 약속개는 시

그때부터, 오늘과 나는 오래 포옹하고

활는다

오려 붙인 시 2

모르는 집 안에 잠시 있습니다 2023년부터 난 여기서
잠에 들어가 222666440286일 되고 떠나지
않을 방법 없을까?

밖에 사는 미친 부모 망했다. 말하고
혈관 덮인 길을 끊는다.
되도록
상하지 않을게요
12월이다 윤희야 영원하거라

절대

14일 되었다
항의없이 집 떠나, 지 않고
다행될 삶 외롭고 개 없이 슬퍼했다.

오려 붙인 시 4

질문이 좋았다 한다
깊게, 중심을 벗어나지
않아서
찾던 답이 거기
있어서
일주일이 지났다
아니 잘 모르겠습니다
이상하지?
하나도 모르겠지?
하긴
이젠 그래
농담이나 한다

오려 붙인 시 5

남자 6명 뿐 다시 설명하면 말을 빠르게 해 버리고
갑자기 말 밖으로 벗어나면 빈 몸이다. 5분만 더
요구하고 도망간다.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아니,
한 것 같기도 하고 일기는 없고 보이지 않아도 믿어라.
밖에서 웃고 있었다. 안 돌아 가야지!

문제: 더 나쁜 물음표

아수라장에도 창문이 있다. 당신들의 세계가 비치고
이제 내가 안이다. 여자는 상상에서 죽겠다 하고
시 썼다. 일기 그 이상을 바라고 궤변을 나볼거리겠다.

누가 죽은 새를 쪼는 것이 보이고 끝내 멀어지네.
지금은 여기가 마음에 들어. 자리는 더럽지만.

오려 붙인 시 6

악

미친 여자야

결론만 말하라고

한 대 맞고 싶냐고

아무도 모른다고…….

눈물이나 쳐흘리라고

가지가지 하라고

…….

드디어 쓰는 한 편의 이기적인 시

나는 사지 멀쩡한 도둑이다.

자신에겐 없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친다.

이런 못된 짓은 하지 말아야지.

하면서 두 개의 다리를 두 개의 팔로 끌고 다녔다.

엄마는 도둑을 키우며 꾸준히 말했다.

가증스러운 것. 이기적이고 껄스민한 것.

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

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는구나!

욕심도 많지.

쫓 쫓,

쫓.

그 여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걸 그랬어.

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말이야.

그런데

그러면

그뿐일 거고

그만큼일 거고.

목격하지 못할 거고.

겪지 못할 거고.

난장판은 하나도 모를 거고.

그래도 도둑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다.

여전히 흠치니까.